

# 경기도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B New Town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김 영 석(Young-Seok Kim)\*\*

### < 목 차 >

I. 머리말	2. 성남시 및 B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I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V. B신도시 건설과 이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
1. 연구의 목적	V. 맺음말
2. 연구 방법	
III.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	
1. B신도시 건설	

### 초 록

철저한 계획도시인 신도시는 도시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할 때 기성도시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기 수도권 신도시 중의 하나인 B신도시를 선정하여 이 도시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분석하였다. B신도시의 경우 주민 입주 시기 전 그리고 신도시 건설 완료 전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수도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B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신도시 계획, 신도시 건설

### ABSTRACT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is more convenient in new towns than in older cities. This is because public libraries can be establish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This study examined how public libraries were built in B new town, which is one of the first new towns constructed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B new town has problems that not even one public library was operated before the people moved to the B new town and that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was not finished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town was completed.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s not enough in B new town. In conclusion, there are many problems in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in B new town.

Keywords: Public Library,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New Town Plan, Construction of New Towns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H00004).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skim7@mju.ac.kr)

• 접수일: 2010년 8월 27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3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 I. 머리말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는 시민들에게 필수 공공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건립비용과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성장한 대도시의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즉,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리고 도시행정가들이 새로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지역에 도서관을 함께 건립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양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지식인들조차도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공공도서관 확충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이때가 공공도서관 확충의 제2차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하고자하는 B도시는 체계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 B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B신도시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기 수도권 신도시 중의 하나인 B지역은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많고, 시가지의 도시계획도 서구적이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이 1990년대 중반에 완료되어 우리나라의 기성도시들과는 차별화된 도시로써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도시이다.

그런데 하나의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 환경 및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sup>1)</sup> 여러 시설 중에서 공공도서관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살기 좋은 도시들은 어느 곳이나 잘 갖추어진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형성된 기성도시에서는 도심과밀화와 고가의 지가(地價) 때문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는 기성도시보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철저한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주택과, 상업·업무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을

1) 하성규, 김재익, 현대 도시관리론: 이론과 현실(서울 : 형설출판사, 2008).

설치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의 계기가 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건설이 시작된 B신도시는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철저한 계획에 의해 건설된 선진화된 도시이다. 따라서 B신도시는 도시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을 효과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신도시의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수용하며, 단계적인 개발을 통한 창의성과 효율성 제고,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편리한 시설 조성에 개발의 역점을 둔”<sup>2)</sup> B신도시가 도시건설 과정에서 어떠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건립하였는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B신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효율적으로 건립되었는지를 조사·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 때 공공도서관을 함께 건립하는 것이 부족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B신도시의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때 공공도서관을 효과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때 공공도서관을 합리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데 있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 수행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우리나라와 외국의 신도시 건설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그 현황과 B신도시 건립에 대한 현황을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둘째, B신도시에 건립된 공공도서관과 관공서 등 이 지역의 주요 시설 등의 입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이 지역 세 개의 도서관과 지하철 역사에 있는 하나의 작은도서관 그리고 B구청을 방문하여 입지, 규모, 이용현황, 층별 구조 등을

2)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한국의 도시(서울 : 법문사, 2005), p.383.

조사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주변의 주택지역과 시내 중심지의 상업 및 업무 시설 지역들을 방문·관찰하였다. 셋째, 문헌조사방법을 통해서 얻 수 없는 중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 지역 도서관 사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이하 LH공사)<sup>3)</sup>의 직원<sup>4)</sup>을 면담하였다.

### Ⅲ.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

#### 1. B신도시 건설

1980년대 말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건설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정부는 성남시의 남단녹지로서 그간 개발이 억제되었던 B지역을 대상으로 1989년 4월 27일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sup>5)</sup>

이것이 B신도시 건설의 배경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정부는 B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다른 4개의 신도시를 서울 외곽에 차례로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1기 수도권 신도시라고 한다. B신도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거 및 도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단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완벽한 도시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신도시는 대규모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여 철저한 계획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성도시와는 다른 면모를 가진 차별화된 도시가 되었다.

B신도시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B신도시의 면적은 590만평으로 제1기 신도시<sup>6)</sup>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표 1> B신도시 개발계획 개요

구분	총면적(천㎡) 천평	수용인구(명)	주택호수	서울에서의 거리(km)	개발기간	사업목적
내용	19,691 5,956	390,500	97,580	남동쪽 25	89.8.31~ 95.12.31	수도권 자족신도시

3) 2009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가 되었다. 본문의 일부 내용에서는 B신도시가 건설되던 때의 이름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용되었다.

4) 연구자는 B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하여 B신도시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고, B신도시개발사(1997) 발간에 참여하였던 직원을 만나 이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과 관련 된 내용을 질문·조사하였다.

5) 한국토지공사, B신도시개발사(서울 : 한국토지공사, 1997), 발간사.

6) 분당(590만평), 일산(475만평), 중동(165만평), 안양평촌(155만평), 산본(127만평).

B신도시는 건설 완료 후 이 지역만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인 B구(區)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한동안 B구는 B신도시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B구에는 또 다른 신도시(판교)가 건설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B구와 B신도시는 더 이상 동일시 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B구에서 판교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B신도시만이다. B신도시의 연도별 건설 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B신도시 연도별 건설 과정

-	1989. 4.27	: 일산·B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	.. 5. 4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 7.29	: 개발계획 구상안 수립
-	.. 8.30	: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	.. 9. 9	: 시범단지 현상공모안 당선작 발표
-	.. 10.16	: 개발계획변경(1차) 및 제1단계 실시계획 승인
-	1990. 2.27	: 용지취득 토지수용재결(1차)
-	.. 6.16	: 지구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제2,3단계 실시계획승인
-	.. 11.22	: 상업·업무용지 용지공급 계약
-	.. 12.31	: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제4,5단계 실시계획승인
-	1991. 5. 2	: 문화환경조성계획(안)수립
-	.. 9.30	: 시범단지 입주개시
-	.. 12.31	: 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1단계변경, 6단계 승인
-	1992. 4.28	: 제3,4,5단계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	.. 12.24	: 도시설계 공공시설지침승인
-	.. 12.28	: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1단계(3차), 3,4,5단계(2차), 2,6단계(1차) 변경승인
-	1993. 6.30	: 개발계획 사업준공(1단계)
-	1994. 2.23	: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 3,4,5단계(3차), 2,6단계(2차) 변경승인
-	.. 4.23	: 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 4,5단계(4차) 변경승인
-	.. 12.20	: 지구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9차) 및 제2~7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
-	1995. 6.30	: 지구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제2~7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
-	.. 12.18	: 지구지정변경(9차),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제2~7단계 실시계획 승인
-	.. 12.31	: 개발계획 사업준공(4,5,6단계)
-	1996.12.31	: 개발계획 사업준공(7단계)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B신도시는 1989년 4월에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7월에 개발계획 구상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89년 10월 시범단지 현상공모안 당선작이 발표되어 B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1년 9월 시범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 12월 B신도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B신도시 개발 지구 지정은 9차례, 개발계획은 11차례 변경되었다.

## 2. 성남시 및 B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B신도시의 공공도서관 건립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상 B신도시가 속하는 성남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의 행정구역인 구(區)를 형성한 B신도시는 행정체계상 성남시에 속하고, B신도시에 건립·운영되고 있는 한 도서관이 성남시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B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은 성남시 공공도서관 운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전체 공공도서관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성남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

B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B구(區)는 성남시를 구성하는 3개의 구<sup>7)</sup> 중 하나다. 2009년 12월 현재 인구 약 98만명의 성남시에는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B구에 4개의 도서관이 있고, 수정구에 2개 그리고 중원구에 1개의 도서관이 있다. 그런데 이들 7개 도서관은 3개의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운영 되고 있다. 즉, B구에 있는 4개 도서관은 ‘성남시 정보문화센터<sup>8)</sup>’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수정구와 중원구에 있는 각각 1개의 도서관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수정구에 있는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성남시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의 7개 공공도서관은 3개의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인구 46만명의 B구에는 4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26만명의 중원구에는 1개 그리고 인구 25만명의 수정구에는 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적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크게 편중되어 있다.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관당 인구수에서 B구는 성남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아 도서관 서비스가 양호하고, 수정구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다. 그러나 중원구의 경우는 1관당 인구수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많아 공공도서관 수가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3> 성남시 구별 공공도서관 수<sup>9)</sup>

구 분	B구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전체
도서관 수(관)	4	2	1	7
인구 수(명)	464,000	250,000	263,000	979,000
1관당 인구 수(명)	116,000	125,000	263,000	139,860

7)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하부 조직인 3개의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다.

8) 성남시 정보문화센터는 성남시 조직의 하나로 관리과와 B구의 4개 도서관팀으로 구성(13쪽 그림 2 참조)되어 있는데, 이 센터는 공공도서관 외에 B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9) 공립(12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32개관) 수 제외.

나. B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B신도시가 속한 성남시에는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그런데 B신도시에 만 이 도시 건립이후 3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따라서 이들 3개 도서관이 신도시 건립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조사하였다. B신도시에 건립된 공공도서관과 그 건립 과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B신도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과정

년. 월	분당도서관	중앙도서관	구미도서관	기타 도서관
98. 1	건물신축공사 착공	·	·	98. 1 성남시 도서관건립준비단 설치 00. 5 중원도서관 개관 00.10 수정도서관 개관
99. 8	건물 준공	·	·	
9	·	중앙문화정보센터 직제운영	·	
10	개관	·	·	
01. 7	·	중앙문화정보센터 준비단 설치	·	
11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 직제변경	개관	·	
06. 2	·	·	건물신축공사 착공	
07. 8	명칭변경*	명칭변경*	·	
10	·	·	개관준비단 구성	
08. 2	·	·	건물 준공	
4	·	·	개관	

\* 명칭변경 : 정보문화센터 ⇒ 도서관.

<표 4>와 같이 1998년 1월에 성남시 도서관건립준비단이 설치되고 B신도시 지역의 첫 번째 도서관의 건물 신축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첫 번째 도서관이 분당문화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두 번째 도서관은 중앙문화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2001년 11월에 개관하였다. 이 두 번째 도서관은 개관 전부터 중앙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건립되었다. 따라서 이 도서관이 개관하고 첫 번째로 개관한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중앙관의 분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문화정보센터는 2007년 8월 그 이름을 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B신도시 지역의 세 번째 (구미)도서관은 2008년 4월에 개관하였다.

신도시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시기와 도서관 개관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사람들은 시범단지의 주민들로 이들은 91년과 92년에 입주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공공도서관은 이들 주민들이 B신도시에 입주하고 7~8년이 지난 후에 건립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들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도 없는 신도시에 생활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도서관도 2001년 11월에 개관하였는데, 이것은 B신도시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주

마친 1994년 및 1995년 보다 6~7년이 늦은 것이다. 세 번째 도서관은 B신도시의 첫 주민들이 입주 시작하고 무려 16~7년이 지난 2008년 4월에 개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봤을 때 B신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잘못 수립되었고, B신도시는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완벽한 신도시 건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실제로 B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B신도시개발사'(한국토지공사 1997)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B신도시 개발 계획 중 공공시설 계획에 의하면 애초에 총 6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그 성격상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시설위치 및 배치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B신도시는 도시규모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1개소의 중앙도서관과 5개의 근린도서관을 계획하여 총 6개소에 1만 8,244㎡의 부지를 확보 하였다.<sup>10)</sup>

그러나 총 6개는 5개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B신도시개발사 중에서 위의 인용문이 소개된 같은 297페이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 5>가 소개되는데 여기에서는 확보된 부지(18,243㎡)는 동일한테 도서관은 6개가 아니라 5개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표 5> 문화·도서관·종합의료·종교시설 총괄<sup>11)</sup>

구 분	시설수(개소)	면적(㎡)
문화시설	3	31,479.6
도서관	5	18,243.5
종합의료시설	5	159,013.9
종교시설	26	84,266

또한 같은 자료 187페이지 'B신도시 자족기능시설 계획<sup>12)</sup>'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도서관은 부지면적 18,238㎡<sup>13)</sup>에 5개관으로 소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B신도시 지역에는 애초에 6개가 아닌 5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B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하면 사업주관기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해 및 의지가 약해 보인다. '신도시개발사'의 공공시설계획에 의하면 신도시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크게 6가지(공용의 청사: 관청, 경찰서, 우체국 등, 사회문화시설: 시민회관,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양로원 등,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통시설: 자동차 정류장, 기타: 공공직업훈련시설)

10) 한국토지공사, 전계서, p.297.

11) 상계서, p.297.

12) 상계서, p.187.

13) 부지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로 나누었지만 공공도서관은 그 어느 시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공용의 청사 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시설 분류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을 문화시설(시민회관, 박물관)과는 별도의 소그룹으로 분류하고, 도서관을 <표 5>와 같이 의료시설 및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과 함께 하나의 대그룹으로 묶어 공공서비스 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건립 추진 의지가 약해 보인다.

B신도시의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은 수(총 11차)차례에 걸친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수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애초에는 5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제11차 변경과정에서는 그 수가 4개로 줄었다. 제11차 변경의 내용에 의하면 도서관은 2~5단계<sup>14)</sup> 개발 시기에 맞춰 각각 한 개씩 총 4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B신도시 개발계획 제11차 변경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구 분	건립 시기(연월)	규모(㎡)	위치(주소) <sup>15)</sup>	현재 상태
도서관 1	2단계(90. 6-95. 6)	4,079	야탑동 260	공원부지 상태
도서관 2	3단계(90. 6-95. 6)	2,131.6	서현동 318	분당등기소
도서관 3	4단계(90.12-95.12)	4,052	정자동 208	분당도서관
도서관 4	5단계(90.12-95.12)	5,287.7	구미동 16	구미도서관

LH공사는 1995년 12월 B신도시 개발계획 제11차 변경을 완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성남시(다른 관계 기관 포함)와 협의하였다. 성남시는 제11차 변경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용지 무상공급대상 추가 반영’을 LH공사에 요구하게 된다. 성남시는 <표 6>에 소개한 것과 같이 LH공사가 계획한 4개 공공도서관 부지를 성남시에 무상양여를 요청한다. 그러나 LH공사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성남시가 무상귀속 요청한 공공시설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토지가 아님. 그러나 지자체 요구사항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운동장은 무상양여하고, 도서관은 4개 부지 중 1개소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협의 추진.<sup>16)</sup>

위의 내용은 애초의 계획과는 다른 현재의 B신도시 공공도서관 상황을 잘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14) B신도시는 총 7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건설되었다.

15) 옛날(구) 사용 방식의 주소.

16) 상계서, p.179.

단서가 된다. 성남시는 위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LH공사로부터 4개 도서관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부지 매입비 지출 없이 4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LH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1개의 도서관만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B신도시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도서관3(그림 1 참조)은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건립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분당도서관이 되었고, 도서관4(그림 1 참조)는 성남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한 구미도서관이 되었다. 현재의 이 두 도서관이 신도시 개발 계획상의 두 도서관과 일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현 도서관의 주소와 함께 도서관의 부지 면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도서관1(그림 1 참조)은 'B신도시 개발계획 제11차 변경'안에 근거하면 도서관으로 건립되기로 되어있었지만 끝내 건립되지 못하고, 그 부지는 B구 야탑3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희공원의 일부가 되었다. 도서관2(그림 1 참조)도 도서관으로 건립되지 못하고 등기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B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LH공사가 애초에 계획했던 4개 도서관(혹은 5개) 중에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예정대로 도서관으로 건립된 것은 두 개 뿐이다. 그런데 현재 B신도시에는 LH공사가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분당도서관과 성남시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한 구미도서관 외에 성남시 중앙도서관이 건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중앙도서관부지(위치)는 원래의 B신도시 개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중앙도서관은 B신도시 개발과 무관하다. 따라서 LH공사의 B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건립된 도서관은 단 2개뿐이다. 이 결과는 '인구 40만명을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충분한 녹지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 한다'는 개발의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아마도 이것은 LH공사와 성남시 어느 한 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두 기관이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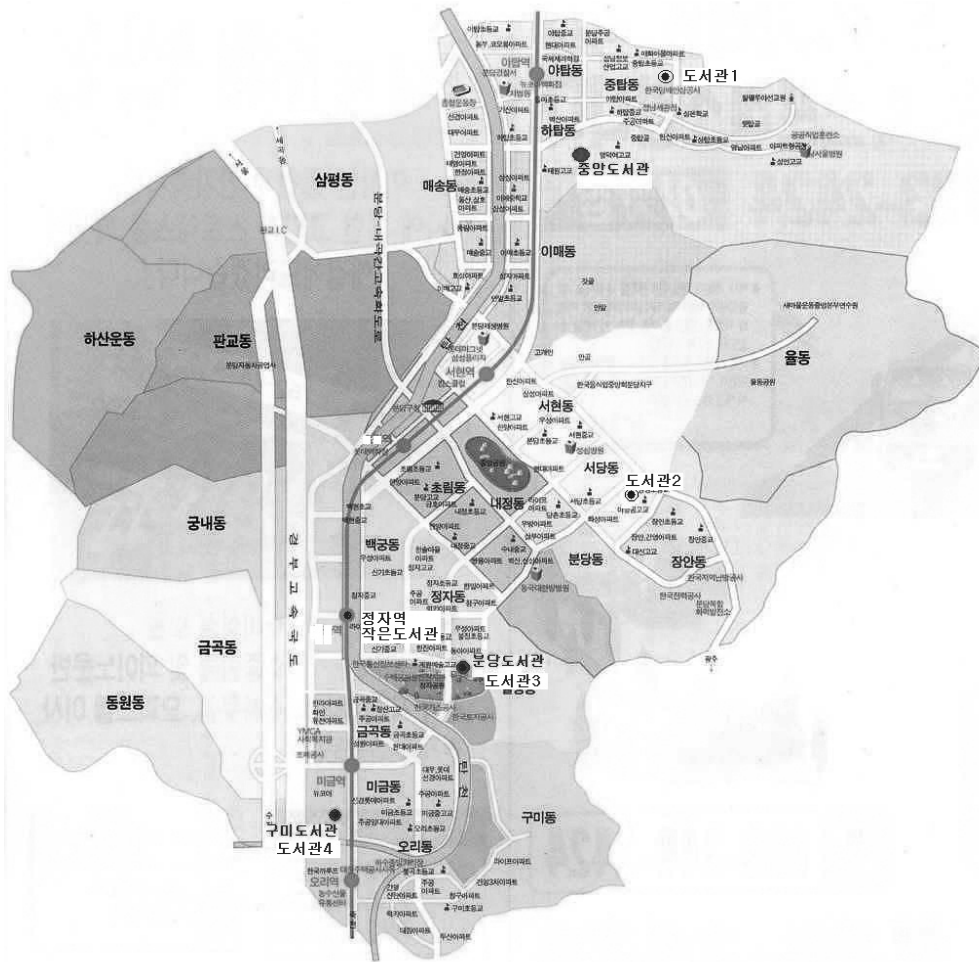
LH공사는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타기관에서는 설치가 곤란한 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가시화하고 입주민의 사회교육 및 문화적 자질향상의 장으로써 B신도시문화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sup>17)</sup>

그러나 실제로 이 의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LH공사가 신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도서관 부지를 조성·확보하고, 이 부지를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지자체에 무상양여 한 것이 아니라 매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본 논문 9페이지에

17) 상계서, p.345.

서 LH공사가 공공도서관 부지는 “무상귀속 대상 토지가 아님”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LH공사가 공공도서관 부지는 “무상귀속 대상 토지가 아님”이라고 결정한 하나의 근거는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과의 답변인 것으로 추측된다. 건설부 택지개발과는 “공공시설은 도로, 하천 등 이른바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이며, 동사무소 부지 등 행정(공용, 기업용)재산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sup>18)</sup>이라고 하였다.



〈그림 1〉 B신도시개발 계획 당시의 도서관 위치와 현 도서관 위치<sup>19)20)</sup>

18) 상계서, p.379.  
 19) 기본지도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가져왔고, 이 지도에 본 연구자가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표시하였음.  
 B신도시(지도보기),  
 <[http://jeui80.impunity.co.kr/bbs/zboard.php?id=urban\\_new5&page=3&sn1=&divpage=1&category=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http://jeui80.impunity.co.kr/bbs/zboard.php?id=urban_new5&page=3&sn1=&divpage=1&category=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 [인용 2010. 8. 25].  
 20) 도서관3과 4만 일치한다.

LH공사는 원래의 4개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에서 다시 “도서관은 4개 부지 중 1개소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협의 추진”<sup>21)</sup>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공공도서관 등의 건립 계획 차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 사업(B신도시 문화·환경조성계획)을 추진하며, 1994년 8월 2일 17개 사업 중 미시행분 3개 사업(상징조형물 및 환경조각, 공공도서관, 건설기념관) 미시행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의 자금약화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보류하게 됨에 따라 1995년 12월 현재 14개 사업만 시행되고 3개 사업은 미시행상이다.

LH공사는 도서관 건립 계획의 미시행에 대해서 동 기관의 자금약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LH공사가 조성·확보하고 있던 공공도서관 부지가 지자체에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신도시개발사<sup>22)</sup>에 의하면 LH공사는 1996년 10월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조성·확보하고 있던 다섯 필지 중 한 필지만 매각에 성공하고 나머지 네 필지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 설명한 LH공사에 의한 B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의 변경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LH공사의 B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의 변경과정

- 초기 계획 : 공공도서관 5개관 건립
- 신도시 개발 계획 제11차 변경 과정: 4개관 건립
  - 성남시 4개 도서관 부지 무상양여 요청
  - LH공사 1개관 건립 후 기부채납, 3개 부지 매각
- 1995년 12월까지 단 1개의 도서관도 건립하지 못함
- 신도시 개발 완료 후 : 2개 도서관(각각 열람석 1,000석 규모) 건립 계획이 열람석 2,000석 규모 1개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
- 99년 10월 LH공사 분당도서관 건립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

본 논문의 핵심 조사 내용인 B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LH공사에 의해 1989년 B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인 96년 12월까지 B신도시에는 단 한 개의 공공도서관도 건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한 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문제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겠다.

21) 한국토지공사, 전게서, p.179.

22)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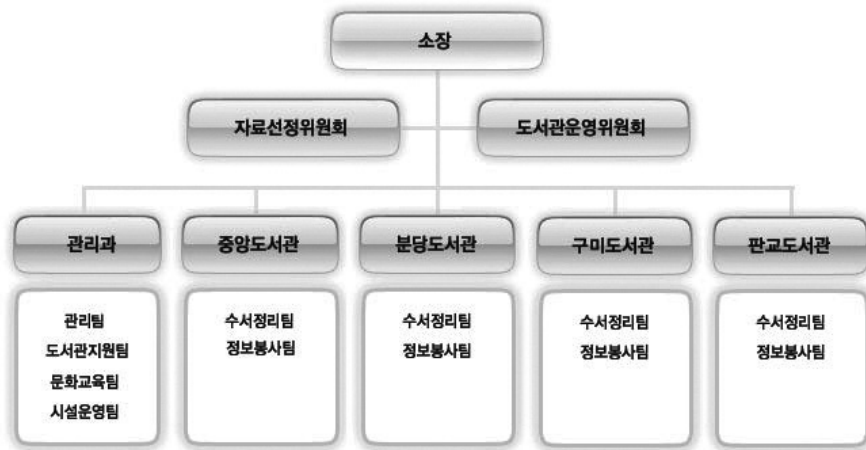
즉, 어느 기관 - LH공사, 성남시,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계, 도서관 전문단체 - 그리고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다.

다. B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B신도시에는 3개의 도서관이 건립·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도서관은 성남시 정보문화센터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의 조직은 아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문화센터소장 아래 관리과가 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sup>23)</sup>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직 구조의 문제점으로는 관리과와 중앙도서관 그리고 분관에 해당하는 다른 세 개의 도서관이 조직도 상에서 종으로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리과는 도서관 지원팀을 포함하는 등 중앙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의 지원부서인데도 조직도상에서 중앙도서관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중앙도서관은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sup>24)</sup>인데 다른 분관들과 조직도상에서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봤을 때 B신도시 지역 도서관 운영 시스템이 아직까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그림 2> B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공공도서관의 조직도<sup>25)</sup>

23) B구의 판교신도시 내의 판교도서관 포함.  
 24) 현재 중앙도서관은 관장직급 및 조직규모(직원 수)에 있어서는 다른 도서관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장서 수는 가장 많고, 도서관의 규모(연면적)도 가장 크다. 도서관의 위치도 지리적으로 성남시의 중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5) 성남시 중앙도서관, 도서관 소개, 조직도, <[http://ct.snlib.net/snct/01\\_intro/11\\_introduce3.asp](http://ct.snlib.net/snct/01_intro/11_introduce3.asp)> [인용 2010. 8. 25].

#### IV. B신도시 건설과 이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

문화도시를 염두에 두었던 우리나라 수도권 최고의 신도시인 B지역은 도시 개발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이 지역 시민들은 입주 후 수년 동안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또한 현재도 도서관 수가 부족하여 완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B신도시에는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3~4개의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 B신도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공공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B신도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원 근처인 서현동 일대에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B신도시에서 이 지역에만 유일하게 대형 도서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11쪽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애초에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는 서현동 318번지(옛날 주소)에 '도서관 2'가 건립될 계획이었다. 또 LH공사가 B신도시 시범단지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신도시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에서도 서현동 일대에 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잘 들어난다. B신도시개발사를 보면 LH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범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에 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LH공사는 이 요청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기 반영하였다고 회답하였다<sup>26)</sup>. LH공사는 아마도 서현동 318번지 도서관<sup>2</sup> 건립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러나 LH공사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B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한 시범단지 주민들이 입주를 완료하고 근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이 지역에만 공공도서관이 없다. 따라서 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지역의 주민들은 근처에 도서관이 없어 직선거리로 2.5km 이상 떨어진 분당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주위의 공립 혹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현동 318번지에는 도서관이 아닌 등기소가 들어섰다. 추측하건데 아마도 LH공사는 이 부지를 도서관부지로 조성해서 성남시에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성남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입이 아닌 무상양여를 요청했고, LH공사가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이 부지에 들어서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후에 법원에서 이 도서관 부지를 LH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등기소를 건립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행스럽게, 현재 성남시는 서현동 일대에 도서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sup>27)</sup>(현재 건립타당성 조사단계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6) 상계서, pp.776-778.

27) 본 연구자가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인 도서관 건립 계획을 문의 했으나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위치 등 정확한 계획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남시 공공도서관 조직도

둘째,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주체의 통합과 함께 조직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조직체계 변화 방안과 조직도는 위의 〈그림 3〉과 같다. 즉, 중앙도서관장이 정보문화센터소장을 겸직하고 중앙도서관장이 총책임자가 되어 성남시 전체 공공도서관을 통합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5급 사서사무관으로 다른 분관과 동일한 직급인 도서관장의 직급을 4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장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사서출신 총 책임자(소장)를 중심으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현재 성남시와 이 도시에 속하는 B신도시 지역에는 크기가 다양한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소규모 도서관을 통해서 부족한 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소규모 도서관도 대규모 및 중규모 도서관과 함께 한 조직 내에 위치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소규모 도서관에 정규 사서직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B신도시의 공공도서관은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도서관 건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다른 신도시에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의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다음 〈표 8〉은 B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설계수립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는 도서관계의 전문가집단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 언제 관여하고, 어떤 관심을 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다음 〈표 8〉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절차에서는 ‘③ 개발계획수립’ 그리고 ‘⑤ 실시계획수립’ 과정에 도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도시 개발 계획에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을 보여준다. 도시설계수립절차에서는 먼저 ‘② 도시설계구상’ 및 ‘③ 계획안 작성’

과정에 도서관 전문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공람(30일간)' 기간에 공공도서관 관련 내용이 신도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차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더불어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계획의 수정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합리적으로 건립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표 8〉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설계 추진절차와의 관계<sup>28)</sup>

택지개발사업절차	도시설계수립절차
① 예정지구지정건의 (시행자)	① 구역지정 (건설부)
↓	↓
② 예정지구 및 시행자지정 (건교부장관)	② 도시설계구상 한국토지공사 국토개발연구원
↓	↓
③ 개발계획수립 (시행자)(장관)	③ 계획안 작성 민간개발 당사자 참여
↓	↓
④ 택지제공 승인	④ 공람(30일간) 성남시
↓	↓
⑤ 실시계획수립 (시행자)	⑤ 수정보완
↓	↓
⑥ 승인신청 (시행자 시·도지사)	⑥ 심의 중앙건축 심의위원회
↓	↓
⑦ 협의·조정	⑦ 수정보완
↓	↓
⑧ 승인 (시행자 시·도지사)	⑧ 승인
↓	↓
⑨ 지적고시 (도지사)	⑨ 확정공고
↓	
⑩ 공사시행 (시행자)	
↓	
⑪ 준공 (시행자)	

## V. 맺음말

우리나라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인 B지역은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새로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계획대로 잘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8) 한국토지공사, B신도시개발사(서울 : 한국토지공사, 1997), p.191. B신도시 개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의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설계 추진절차를 소개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B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은 애초에 신도시 건립 계획에서 밝힌 것과는 다르게 그 수가 축소되었다. 즉, 애초에는 5개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신도시 완료 후 원래 계획부지에 건립된 도서관은 2개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 LH공사와 신도시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신도시에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민, 시민단체 그리고 도서관 관계자 및 전문가집단이 신도시 계획수립 및 건설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주관사, 예를 들면 LH공사나 민간기업이 공공도서관을 무상으로 건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실제로 LH공사는 B신도시에서 1개의 도서관을 무상으로 건립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양 평촌신도시 등 다른 지역<sup>29)</sup>에서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신도시 개발주관사로 하여금 도서관 건립 부지를 조성하여 이 부지만이라도 지자체에 무상양여 하도록 하고, 그 부지에 지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현재 B신도시에 건립·운영되고 있는 3개의 공공도서관의 평균 크기(연면적)는 9,450㎡<sup>30)</sup>로 규모가 너무 크다. 따라서 LH공사는 이들 도서관(중앙도서관 제외)의 건립을 위해 넓은 부지를 확보했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부지의 가격도 비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성남시로 하여금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서관 부지 확보 및 그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도시 건설주관사 및 해당 지자체는 가급적 중 혹은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도서관 건립비용의 절감 외에도 공공도서관은 하나의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중 혹은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이용자인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면에서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넷째, 앞으로의 신도시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입지를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한다. B신도시 3개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모두 일반 상업시설 및 건물과는 다르게 큰길에 위치하지 않고, 큰길에서 들어간 작은 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잘 노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반인들에게 도서관 건물을 상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대로변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도서관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한적한 공원 주변에 단독건물 형태의 도서관이 아닌 대로변에 다른 공공건물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 공존하는 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다면 도서관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고, 도서관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29) 서울시 노원구, 제주도 서귀포시, 고양시 일산구, 수원시 팔달구

30) 중앙도서관(13,018㎡), 분당도서관(8,525㎡), 구미도서관(6,800㎡)

B신도시 건설은 15년 전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B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만 밝힌다면 이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현시점에서의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 제시라고 하겠다. B신도시 공공도서관 운영의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에 앞으로 3~4개의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한다. 현재 B신도시 지역에는 총 3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약 128,000명당 1개관에 해당되므로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상황인 인구 70,801명당 1관과 비교해서 도서관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B신도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총 5.4개의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현재 3개의 도서관만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의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역 도서관 직원에 의하면 성남시는 서현동 지역에 1개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지역이 공공도서관 인프라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3~4개 이상의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지역에는 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10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서가 배치된 곳은 공립 작은도서관 4개관 밖에 되지 않아 전문적인 경영 및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B신도시와 이 지역이 포함되는 성남시 전체 공공도서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도서관 운영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현재 성남시의 7개 도서관은 3개의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통일이 필요하겠다. 교육청과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운영 통합이 어렵다면 먼저 성남시 직영도서관(4개관)과 시설관리공단소속 도서관(2개관)의 통합운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통합 이후의 발전 방안으로는 중앙도서관장이 정보문화센터소장(현재 행정직 서기관)을 겸직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이 성남시 전체 6개 도서관을 통합·관리하는 분관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불어 성남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현재의 6개 대규모 도서관(분관)의 소분관으로 만들어 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통합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의 어느 학자는 B신도시를 이렇게 혹평하였다. “주택난 해결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신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된 B신도시는 자연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인공적인 건물로 채운 시멘트의 도시이다.”<sup>31)</sup> 본 연구자는 B신도시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신도시 곳곳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이 도서관들이 B신도시의 문화를 꽃피우는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

31) 김상숙 외 15인, 우리 도시의 이미지(서울 : 솔과 학, 2005), p.51.

## 참 고 문 헌

- 김상숙 외 15인. 우리 도시의 이미지. 서울 : 솔과 학, 2005.
- 김영석.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2007.3), pp.29-48.
- 김영석.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영국의 밀턴킨즈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6), pp.381-403.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개발론. 서울 : 보성각, 2002.
- 도시계획법(법률 제4541호, 시행 1993. 3. 6).
- 발레리 줄레조 저. 아파트 공화국. 김혜연 옮김. 서울 : 후마니타스, 2007.
- 성남시 중앙도서관, 도서관 소개, 조직도.  
<[http://ct.snlib.net/snct/01\\_intro/11\\_introduce3.asp](http://ct.snlib.net/snct/01_intro/11_introduce3.asp)> [인용 2010. 8. 25].
- 순천시 조직도.  
<[http://www.suncheon.go.kr/open\\_content/about/organization/organization01/](http://www.suncheon.go.kr/open_content/about/organization/organization01/)>  
[인용 2010. 8. 25].
- 주택공사 편. 대한주택공사 30년사. 서울 : 주택공사, 1992.
-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4781호, 시행 1994. 8. 3).
- 하성규, 김재익. 현대 도시관리론: 이론과 현실. 서울 : 형설출판사, 2008.
-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한국의 도시. 서울 : 법문사, 2005.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 문화시설의 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 한국토지공사. B신도시개발사. 서울 : 한국토지공사, 1997.
- 한국토지공사. 주민과 함께하는 토공의 공공건축물. 서울 : 한국토지공사, 2000.
-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업무편람. 서울 : 한국토지공사, 2009.